도심권
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26.9% 상승, 전월에 이어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

- 전년동월대비 +26.9% = 소매업의 기여도 +20.8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6.1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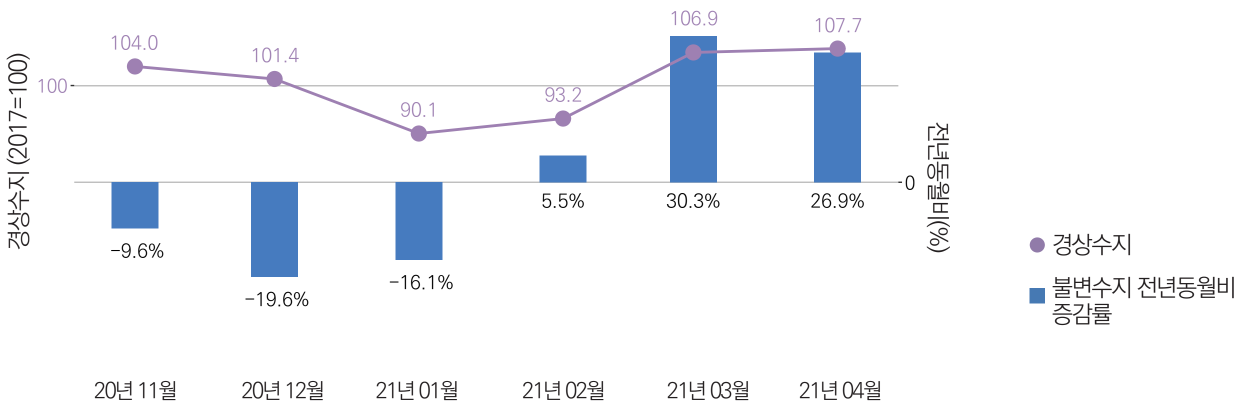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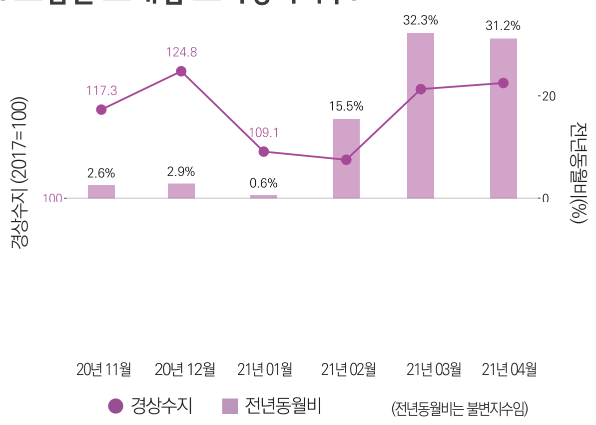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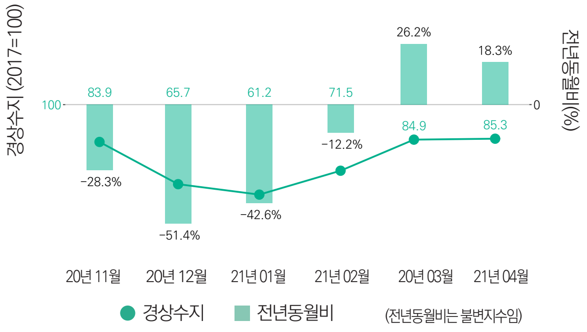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1.2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8.3% 상승

- 도심권은 소매업과 숙박·음식점업의 세부 업종 대부분의 매출이 (전년동월대비) 증가하면서 전월에 이어 권역별 소비경기지수가 서울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남(단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는 매출 감소). 소매업 세부 업종 중에는 무점포소매(95.6%)와 종합소매(21.8%)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나타냄
  - · 4월 도심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종합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 - · 반면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 순으로 소비감소
- 도심권은 전월에 이어 4월에도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의 매출이 (전년동월대비) 증가하면서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가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음.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나타내면서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
  - · 4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❙ 도심권 소비경기지수❙



❙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❙



❙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❙